

중국, 송화강 오염사고 발생

화학기업 공업폐수 무단 배출 ... 생수 대량 사재기 재연

최근 중국 Heilongjiang에 있는 송화(松花)강 지류인 牛亡牛河에서 공업폐수로 인한 오염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이 앞다투어 생수를 사재기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중국의 현지언론들이 8월24일 보도했다.

오염사고는 8월21일 Jilin성 Jilin시에 소재한 한 화학기업에서 공업폐수를 하천으로 무단으로 배출하면서 발생했다.

현재 화학기업 대표와 공장 책임자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약 5km에 걸쳐 형성된 오염띠는 기본적으로 모두 제거된 상태이며, 본류인 송화강에서는 아직까지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eilongjiang성 정부는 2005년 11월 송화강에 벤젠(Benzene)류가 대량으로 유입돼 큰 홍역을 치렀던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염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얼빈시에서는 시민들이 대형마트로 달려가 생수를 대량으로 사재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선양=연합뉴스 조계창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24>